

제6계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1)

- 읽을 말씀 마 5:21-2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의 진정한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첫 시간으로, 21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마 5:1)을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와 오버랩해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5개의 강론들과 7개의 이야기들을 교차시켜 놓은 구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베이컨은 “마태복음의 다섯 책을 모세의 다섯 책과 일치하게 하여 일종의 ‘신약오경’이 되게 하기 위함” 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지만, 여기에 더글라스 헤어의 말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대성서주석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훨씬 큰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모세 유형론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마태는 그의 독자들이 산상수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토라에 대한 하나의 최종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1-48절에 나오는 여섯 가지 대구가 모세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반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분명한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17절). 예수님도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율법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싸움은 율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단서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27,38,43절)**” 혹은 간단하게 “...**하였으나(31절)**” 라는 서두의 일정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들의 공통적인 말은 “**하였으나**” 로 헬라이어 동사 ‘에레테’ 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사용하던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섯 개의 대구에서 예수님이 부정한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전한 백성들이 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부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용이 그 단서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 율법의 계명들로 보이지만(21,27,31절), 마지막 대구에 이르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43절)**”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 확실한 율법의 명령(레 19:18)이지만 후반부는 레위기 19장 18절은 물론 구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싱클레어 퍼거슨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구약성경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그 단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의미를 약화시켰지만 예수님은 각 계명의 의미를 심화하고 강화하셨습니다. 엄격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상 네 가지의 단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고, 참된 해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집 상」에서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십니다...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선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한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그리고 참스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의 요구를 희석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복음과 진리에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영혼들을 위해 반드시 치명적인 오류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제6계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20절)입니다. 5장 21-48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48절을 통해 계명들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20절).

예수님은 여섯 가지 계명들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 가장 무거운 계명이지만 살인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죄처럼 보입니다. 살인은 가장 큰 죄이고 쉽게 일어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분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요일 3:14-15) 천국이 아닌 지옥 불에 던져진다(계 21:8, 22:15, 마 5:21-22)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6계명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내가 살인자는 아닌가?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① 유대교는 제6계명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마 5:21).” 에서 “옛 사람” 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6계명을 인용했습니다. 때문에 프란스는 이 구절이 율법의 계명을 그대로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라는 첫머리뿐 아니라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뒷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는 말이 옛 사람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시대의 사람들이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계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산상설교집 상」 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두 가지를 병치시킴으로 ‘살인치 말라’는 계명의 뜻을 감소시켜 실제 살인을 범하는 문제로 격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것(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을 첫째 것(살인하지 말라) 바로 뒤에 덧붙임으로써 이 명령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둘째로 한 일은, 이 명령에 붙어 있는 재가를 치안판사의 손에 벌하는 것으로 격하시키고 제한해버렸다는 것입니다...즉 “너희가 살인하면 치안판사에게 형벌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부자청년 사이의 대화(눅 18:20-21)에서 부자 청년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을 통해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행하라」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이 말씀을 알기보다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듣는 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서 설교자가 증거하는 말씀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빠지게 되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길로 인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분별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시금석으로 삼아 분별하여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단사설과 사람의 계명에 속지 말고 스스로 영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인정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유익을 나누어 봅시다.